

진실한 참회로 '업보의 짐' 벗어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③0 업에서 벗어나는 법

나쁜 짓 하기도 무서웠어요

재소자인 S씨는 배신한 동료에게 복수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다. 상담시간에 법사가 "복수보다 어려운 건 그를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었으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다시 상담 때 물기로 했다.

"법사님, 복수하지 말라는 부처님 뜻은 좋아 보이기는 한데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이 억울하세요?" "불자들은 누구나 다 용서해 주라하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괜찮겠어요? 선하게 사는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언제 부처님께서 나쁜 일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된다고 하신 건 아니지만 용서받으면 그냥 무효잖아요." 법사는 정색을 하며 "거사님, 무효란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 그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은 참회하지 않는 한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 거사님에게 이유 없이 잘 못했다고 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그 과보를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철두철미 인과의 법칙, 불교의 기본입니다."

인과는 우주의 법칙

"글쎄요, 법사님,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들어 왔지만 솔직히 나쁜 짓 하기도 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안 걸리면 그만인데... 그래도 공평하다고 하시렵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나라도 있을까요? 자기 마음이 알고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한 우주를 속일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드리지요. 누군가 오늘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잡혔습니다. 잡히기 전 6일 간은 아무 문제없이 살았어요. 게다가 부정한 남의 돈으로 사치부리며 잘 먹고 놀았어요. 그럼, 그 6일만 본다면 나쁜 짓 하기도 잘 사는 거지요?" 법사의 설명은 계속되었

윤회와 인과는 '우주의 법칙' 진리 모르는 무명이 유일한 '죄' '참회·정진·보시'가 업 벗는 길

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 생은 수많은 생 중에 단 하나에 해당합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부정부패, 혹은 남을 괴롭히고 악업을 저지르면서도 이 생에 문제없이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어렵잖지요! 내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내일 잡힐지 모레 잡힐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에서 그 과보를 받는가, 다음 생에서 받는가의 차이 일뿐, 확실한 것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내생이 있는지 또 받는지 아닌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통들, 또 가슴 찢어지는 끔찍한 사연들, 거사님, 윤회와 인과는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실상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셨고, 그대로 가르쳐주셨을 뿐입니다. 개인이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건 안 믿건 우주의 법칙은 그대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자유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에 죄는 단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 가지라니요?" "바로 모르는 게 죄, 진리를 모르는 무명입니다. 진실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을 안다면 돈 주고 하라고 시켜도 안 할 거니까요. 예를 들까요. 여기 음식이 있는데 보기는 좋아 보이고 맛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독이 들어 있다면 거사님은 잡수시겠습니까?" "에이, 농담을요. 절대 안 먹지요!" "그와 같아서 자기가 하는 악한 일이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해서 잠시만, 또 어쩌면 이 한 생 동안만 좋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내일 울지 모레 울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죄 아니겠어요?"

"법사님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무서워지는 데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것에서 벗어나는 길도 법이져 진리입니다. 바로 진실한 참회와 마음 정진, 그리고 보시 등의 길이 있습니다. 업보와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며 서로 자비심으로 공생하며 사는 게 불교입니다. 아니 종교 이전에 그것만이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S씨는 앞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에 대해 공부해 보기로 했다. <천수경>을 사경하는데 유난히 한 구절이 가슴을 친다. "마음 비워 공하여야 이름 하여 진실한 참회라 한네."

■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7>

정신분석과 불교-7

"포크(pork)는 훌륭한 프랑스 말이야. 돼지(pig)는 색슨의 손에 기를 때는 색슨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성 안의 넓은 방으로 운반되어 높은 사람들을 대접하게 될 때에는 노르만어로 불린단 말이야."

스콧의 유명한 소설 <아이반호>에 등장하는 색슨족 하인이 한 말이다.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암소는 영어로 카우(cow), 수소는 옥스(ox)라고 한다. 그런데 쇠고기는 프랑스에 어원을 둔 비프(boef)로 부른다. 이는 11세기에 유럽 북방의 노르만족이 남하하여 영국에 노르만 왕조를 세우고 원주민인 색슨족을 지배하면서 생겨난 언어 현상이다. 즉 피지배계층인 색슨족이 가축으로 소를 기를 때는 색슨말로 부르다가 고기가 되어 식탁에 오를 때는 지배계급인 프랑스말로 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에는 역사와 그 역사를 겪으며 살아간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커다란 기준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사용'이듯, 언어란 이렇게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에서도 언어는 중요한 매개체다. 상담자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 즉 표정이나 몸짓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역시 언어다.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를 언어화해서 표현할 때 이미 절반쯤은 치료에 성공한 셈이다. 왜냐하면 내담자 스스로 감당해 내기에 너무도 힘들어 경험이나 기억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 두었기에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언어로 표현하였다는 것은 무의식이 의식화했다는 의미이며, 감당해 낼 힘을 어느 정도 구축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신분석에서는 언어가 없어서는 안 될 제1의 수단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등의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에서는 언어를 그리 신뢰하지 않으며,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은 언어뿐이므로, 언어를 방편으로 쓰긴 하되 언어의 일상적 용도를 뛰어넘는 대화를 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그것이 바로 간화선 선사들이 주고받는 선문답(禪問答)이다.

부처님께서는도 정각을 이루고 나서 처음에는 '내가 증득한 법은 심히 깊고 미묘하고 가장 지극한 적정(寂靜)인지라... 마음으로 헤아릴 바가 아니며, 말로 할 수도 없으며, 들을 수

정신분석에서 언어는 치료를 위한 제1의 수단

불교는 언어 불신... '선문답'으로 한계 극복

도 없으며,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걸리는 바도 없다. ... 만약 이 법을 사람들에게 연설하면 그들은 모두 분명한 말 못할 뿐만 아니라 ... 그러므로 나는 잠자코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러나 대법현왕의 간곡한 청에 따라 법을 설하기로 결심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애당초 인간 사랑 능력의 한계, 언어의 한계를 간파하셨다.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심증을 전하실 때 연꽃을 들어 보이셨던 것이다(연화사증(拈華示衆)).

하지만 부처님께서는도 사람들을 부처님 법으로 이끄는 초기 단계에서는 세속의 언어를 심본 활용하셨다. <잡아함경>에서 그 예시를 볼 수 있다. "그릇이 쓰일 때마다 명칭이 달라지듯, 나도 세상 사람이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신명게시판

●대불련 초발심으로 미래도약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원회(회장 전보상)가 9월 8~9일 부산 범어사에서 '대불련 초발심으로 미래도약'을 주제로 제5회 총동원대회를 개최한다. 친목도모를 보다 중요시했던 다른 대회와 달리 이번 대회는 팔재계를 수지하고 생활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8일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으로부터 팔관계를 수지한다. 9일에는 특강도 마련했다. 분타빠라 스님이 '미래사회와 근본불교'를, 우승택 센터장(상성중권 자선클리닉센터)이 '유익을 알면 돈을 지킨다'를 강연한다. (02)720-1963

강원에서 종교적 이념의 갈등과 테러를 넘어설 메시지를 담아 (육조단강)을 풀어낼 계획이다. (02)963-5291

●구룡사 성지순례·불교대학 아간반 개설 =서울 구룡사가 9월 13~14일 남해 보리암, 천안 각원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13일 오후 9시에 출발하는 무박2일 일정,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오면 된다. 한편 9월 11일 저녁 8시에는 불교대학 아간반을 개설한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구룡사 1층 회관에서 진행된다. 교재비 포함 수강료는 5만원이다. (02)675-7766

●통도사 일요가족법회 =양산 통도사가 일요가족법회를 마련했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통도사 선법전에서 열리는 일요가족법회는 불교에 관심이 많으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 및 청·장년층을 위한 법회이다.

9일에는 통도사 주지 아산 정우 스님이, 16일에는 통도사 강주 해암 우진 스님이, 23일에는 통도사 울진 정 우실 덕문 스님이, 30일에는 백련암 원산 도명 스님이 법문한다.

●화엄산법 천안기도 =부산 여어선원이 9월 13일 부산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을 모시고 53선까지 초청 화엄산법 천안기도 대법회의 11번째 법회를 봉행한다. 부산불교회관 8층 대법당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05)853-5486

●조계사 가사불사 =서울 조계사가 스님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가사불사(袈裟佛事)를 봉행한다. 인제는 9월 11일, 화양은 11월 12일이다. 가사불사를 통해 제작된 가사는 중단의 원로 큰스님들에게 봉헌할 예정이다. (02) 732-2187

외설 범당에 2인인등과 연등으로 변화와 불공기도를 올릴 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악운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설범당을 개설.

세계 최대 외설(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운융창,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 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이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세계 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다층 탑인, 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중남기법문역에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세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지순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 불렀으며, 비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할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 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바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써 밝고 환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나눔담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佛不二)가답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